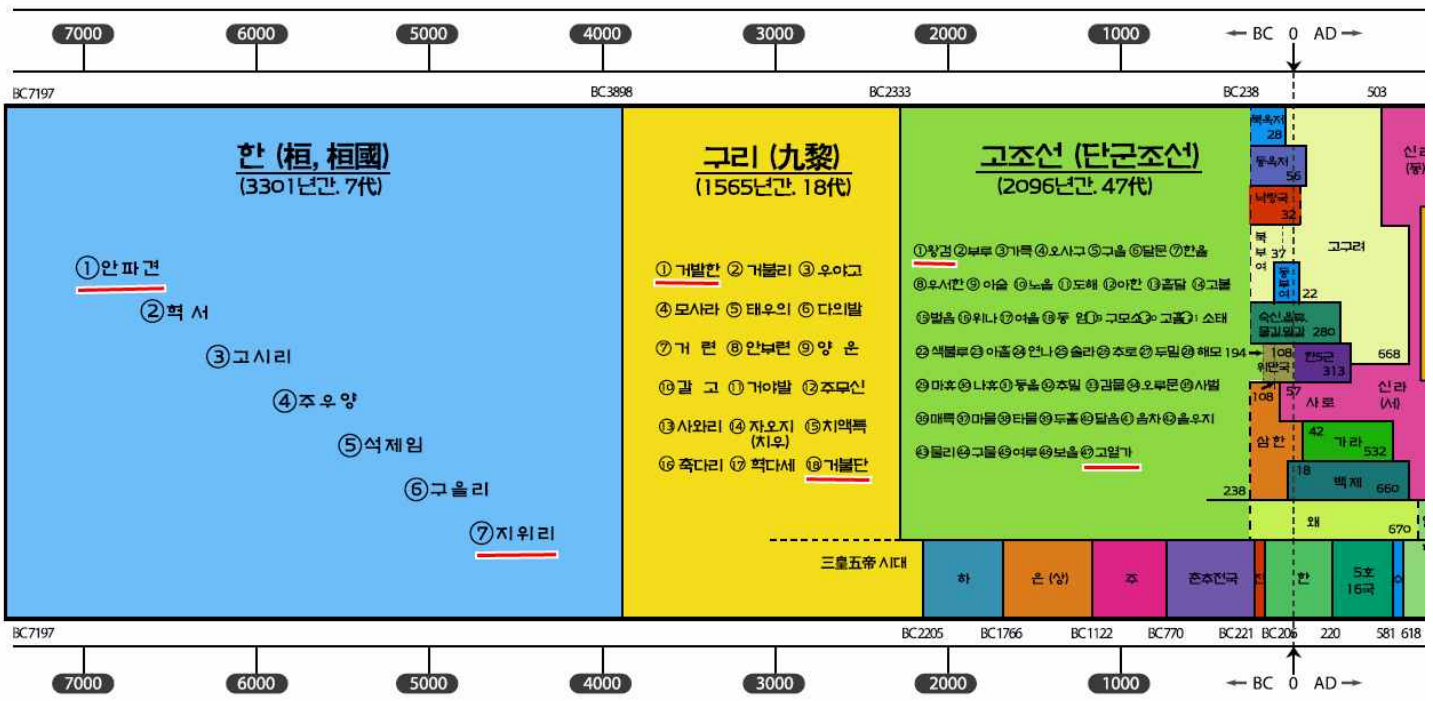


잘못 알고 있는 우리역사	진실로 밝혀진 우리역사
1. 역사를 잘못 알게 된 원인 - 일제 식민사관을 전수한 식민사학자들 때문 - 해방후 69년 동안 일제가 조작한 역사 학습 * 송-명, 근세조선도 왜곡을 하였으나 일제가 왜곡 완성	1. 우리 역사를 조작한 식민사학자들 - 서울대 사학 이병도 제자 (이기백, 이기동, 송호정) - 고려대 사학과 신석호 제자 (김정배, 최광식) * 기 타 : 경희대 조인성 등
2. 일제가 조작한 역사내용 - 단군역사 신화화로 상고사 말살 - 반도사관 주입 (한반도를 떠난적 없는 민족)	2. 우리 역사를 조작한 이유 - 일본보다 역사를 짧게하여 영구지배 획책 - 일본 역사를 주입하여 일본 국민화 전략
3. 지금까지 교육받은 우리역사 : 2천년 - AD300년대 이후에 국가형태를 갖춘 미개민족 - 결국 우리나라 역사는 2천년에 불과	3. 새로 밝혀진 우리나라 역사 : 반만년 ~ 일만년 - 단군조선은 실존한 나라 : 반만년 - 단군조선 이전에 배달국과 환국 존재 : 일만년
4. 단군은 신화 - 일제 조선사편수회에서 일본인 금서룡이 조작 - 그 하수인이 이병도, 신석호	4. 이병도가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단군실존 고백 - 조선일보 1986년 10월 9일 대서특필 - 기사제목 “단군은 신화 아닌 우리 국조”
5. 단군이전의 역사 말살, 신화화 - 삼국유사 환국(桓國)을 환인(桓因)으로 위조 - 단군조선 이전 5천년 역사를 말살	5. 중국 정사 및 민족사서에서 복원 : 역사 1만년 - 사마천 사기 및 민족사서 환단고기 - 배달국 14대 치우환웅 역사 및 유물로 증빙
6. 단군왕검 374년전에 제위에 오른 치우환웅 - 중국 사기 기록을 보면 시조 황제 현원이 배달국 14세 치우환웅과 전쟁하여 이겼다고 기록 * 치우환웅 : B.C2707년 제위오름	6. 환단고기에서 치우환웅이 제후 아들 현원 응징 - 제후의 아들 현원이 반란을 일으키자 진압함 - 사기 기록대로 산동성에서 무덤 발굴 * 현재 치우환웅 무덤이 복원되어 있음 (실제역사)
7. 치우환웅의 기록은 전설 - 단군조선도 신화라 주장 - 중국은 삼황오제의 역사 왜곡 노력중	7. 중국 정사에 기록이 있고 무덤이 발굴됨 - 따라서 배달국을 이은 단군조선도 실존역사 - 삼황오제의 역사는 국명이 없음

☞ 새로 그린 우리나라 연표



☉ 일본 중국이 조작한 연표

	B.C 2333	1122	194	108
	고조선(신화)	기자조선	위만조선	한사군 (108~AD3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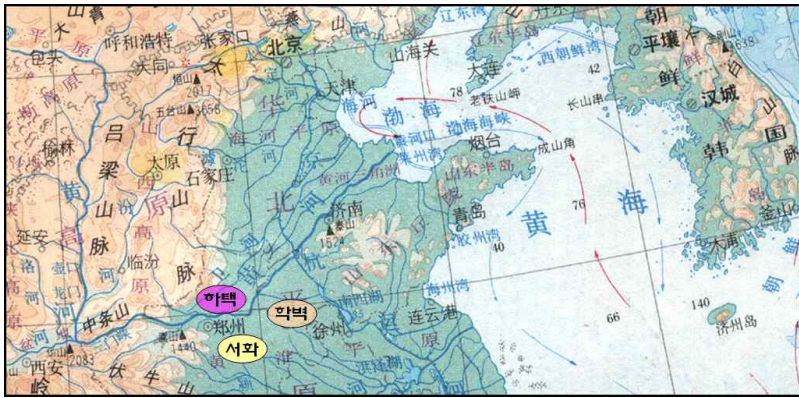
☉ 실제 연표

	B.C 7197	3897	2333	238	58
삼신 (마고)	한국 (7대 3301)	구리(배달)국 (18대 1565년)	고조선(단군조선) (47대 2096년)	북부여	고구려

잘못 알고 있는 우리역사	진실로 밝혀진 우리역사
8. 은나라 신하 기자가 조선으로 옴 (BC1122년) - 왕이 되어 기자조선으로 통치, 존속 - 평양의 기자묘	8. 기자는 한반도에 온 적이 없음 - 기자조선은 날조, 왕이 된 적도 없음 - 평양의 기자묘 날조, 중국 산둥성에 무덤 실존
9. 연나라 사람 위만이 조선을 통치 (BC194년) - 단군조선 전체를 통치 - BC108년 한무제에게 망함	9. 위만이 통치한 나라는 단군조선 중 번한 - 단군조선은 삼한으로 통치 : 진한, 마한, 변한 - 진한 단군 직접통치, 나머지는 왕을 두어 분치 - 진한은 47대 고열가 단군후 북부여가 계승 - 북부여 1대 단군 해모수가 BC238에 이음 - 위만이 침범한 조선은 변한으로 기준왕 시절 * 한무제가 공격한 조선도 변한
10. 한무제가 조선을 멸하고 한사군 설치 - 한반도에 낙랑, 임둔, 현도, 진번 설치 * 이중 낙랑군은 313까지 존속 주장	10. 한무제가 공격한 것은 하북성 변한땅 - 위만의 손자 우거왕의 저항으로 한나라 참패 - 왕검성 내부반란으로 항복 - 한반도내 한사군 설치하는 후대의 날조 - 중국 하북성 산둥성 등 조선 5군만 설치 * 중국 사기 조선열전에서 입증 * 후에 북부여 5대 고두막한이 한나라 군사 쫓아냄
11. 고구려는 한반도 북부에 존재	11. 고구려는 중국대륙 깊숙이 존재 - 2대 유리왕 무덤 북경 존재 : 권철현의원 증언 - 모본왕이 산서성 공격 (AD49 삼국사기) - 고구려 덕흥리 고분 : 국소대형 진의 통치강역 → 중국 하북성, 산서성 전체
12. 백제는 한반도 서남부에 존재	12. 백제는 중국 동해안 전체를 통치 - 중국 남제서에 나오는 동성대왕의 통치강역 → 하북성 북경에서부터 남쪽 상해까지 통치 - 북위와의 전쟁에서 기병 수십만 몰살시킴
13. 신라는 한반도 동남부에 존재	13. 서울대 박창범 교수 일식기록 분석 - 신라는 초기 양자강 유역, 후기 한반도 남부 - 백제는 발해만 유역 - 고구려는 북경 윗쪽
14. 우리는 사서가 삼국사(기) 삼국유사 뿐 - 실제 삼국유사에는 한국역사가 기록 * 옥산서원 원본은 '삼국사' - 실제 삼국사(기)에는 단군이전이가 기록	14. 시대별로 사서 다수 존재 - 단군조선 : 배달유기, 신지비사, 해동비록 - 고구려 : 유기 100권, 신집 5권 (이문진) - 백제 : 서기 (고흥) - 신라 : 국사 (거칠부) * 단군신화 조작을 위해 사기와 유사 2권만 남김
15. 민족사서는 위서 - 식민사학자 경희대 조인성, 교원대 송호정 주장 * 위서 바이러스를 퍼트리는 주범	15. 규원사화 진본 국립도서관 보관 - 식민사학자들이 진본 은폐 - 이외 환단고기, 부도지 복원작업 중



8. 은나라 신하 기자는 한반도에 온적이 없다. 기자조선은 허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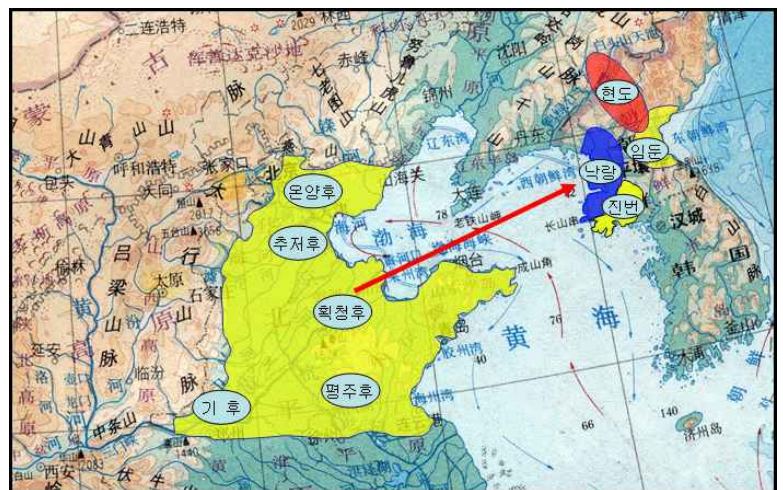


[산동성 하택시 조현에 있는 기자묘]



기원전 1122년 은나라가 망하자 주나라 무왕이 기자를 조선에 봉했다고 하나 허구다.  
 고조선은 진한은 단군이 직접 통치를 하였고 마한, 변한은 각각 왕을 두고 통치를 하였는데 (삼한제도)  
 은나라가 망하자 기자가 고조선망 중 변한땅 서화에 망명을 와서 살다가 죽었다.  
 기자가 살았던 하택, 학벽, 서화가 고조선 변한의 땅이었다는 말이다. 즉 고조선의 서쪽 경계다.  
 기자의 무덤은 산동성 하택시 조현에 있으며 기자 사당은 하남성 학벽시 기현에 있다.  
 한반도에 왔다는 것은 거짓말이며 반도사관 주입을 위해 조작한 것이다. 기자조선은 소설이다.  
 평양의 기자묘도 당연히 가짜다. 산동성에서 죽은 기자가 어떻게 한반도에 올 수 있는가?

9-10. 한무제가 공격한 조선은 하북성 변조선의 수도 왕검성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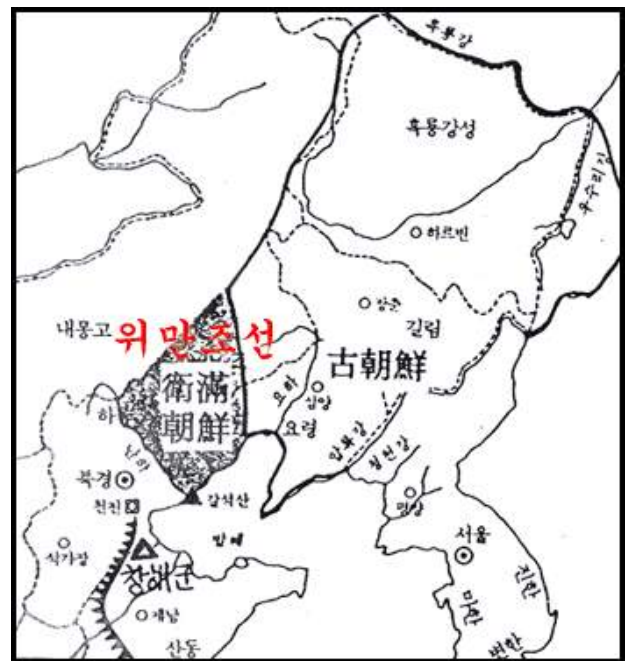


기원전 194년에 연 위만이 차지한 나라는 하북성 창려유역 변한(기준왕) 땅 이며,  
 기원전 108년 한무제가 위만의 손자 우거왕과 전쟁을 한 지역 역시 여기였고  
 우거왕은 한무제와의 전쟁에서 패하지 않았고 한무제의 수륙 양군은 참패를 당하였다.  
 왕검성 내부반란으로 성문을 열어주자 조선사람 5명으로 하여금 통치케 하였는데,  
 그 지역이 상기 지도중 노란표시 지역 즉 하북성, 산서성, 산동성 유역이었다. (사기 조선열전)  
 한반도내 한사군 즉 현도, 낙랑, 임둔, 진번은 후대의 일본놈들이 조작한 허구의 역사이다. (반도사관)

10. 이병도가 조선사편수회에서 조작한 한사군도 (가짜) : 한반도에 왕검성과 한사군이 있다고 조작



10. 이병도가 죽기전 발표한 '한국상고사 입문'에서 고백한 한사군도(진짜) : 위만조선과 한사군이 하북성에 있다.



역사왜곡의 주역인 이병도 박사가 죽은해인 '89년도에 '한국상고사입문'(최태영, 이병도 공저)이라는 책을 출판하고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죽는다. (도서관에서 찾아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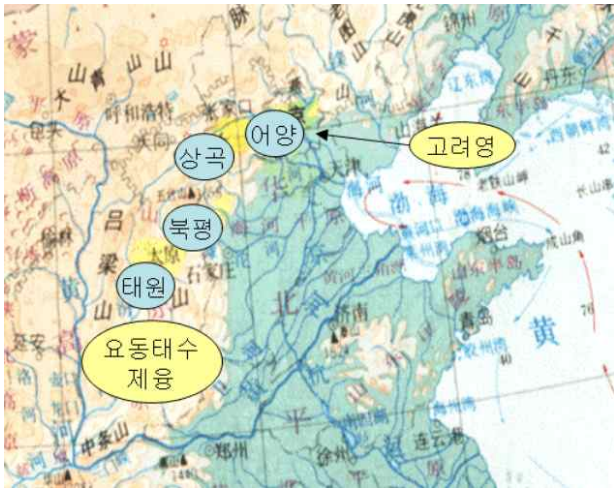
“한사군은 한반도에 설치된 것이 아니라 중국 하북성 난하 유역에 설치가 되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스승이 노망들어 헛소리 한 것이라며 공격하고 한반도내 한사군설을 주장한다.

한반도내 한사군설을 만든 스승의 고백도 무시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제자들은 정상이 아니다.

(공저자 최태영 박사는 사단법인 한배달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이병도 설득하여 민족반역자의 오명을 죽기전에 벗어나게 해주었다'. '지들 스승[이병도]을 욕할 수 없으니 나를[최태영] 공격하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증언.)

11. 고구려는 중국 대륙 깊숙이 공격한 초강국 이었다.



고구려 2대 유리왕의 무덤이 북경 유리하 유역에 있다고 권철현 국회의원이 증언

AD49년 모본왕이 공격한 지역은 하북성, 산서성 땅이었다. (어양, 상곡, 북평, 태원)  
고구려가 하북성 유역에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산동성, 강소성에는 고구려 명장 연개소문의 전적지가 5개나 존재한다. 사서에 나오지 않는 현지에 보존되고 있는 전적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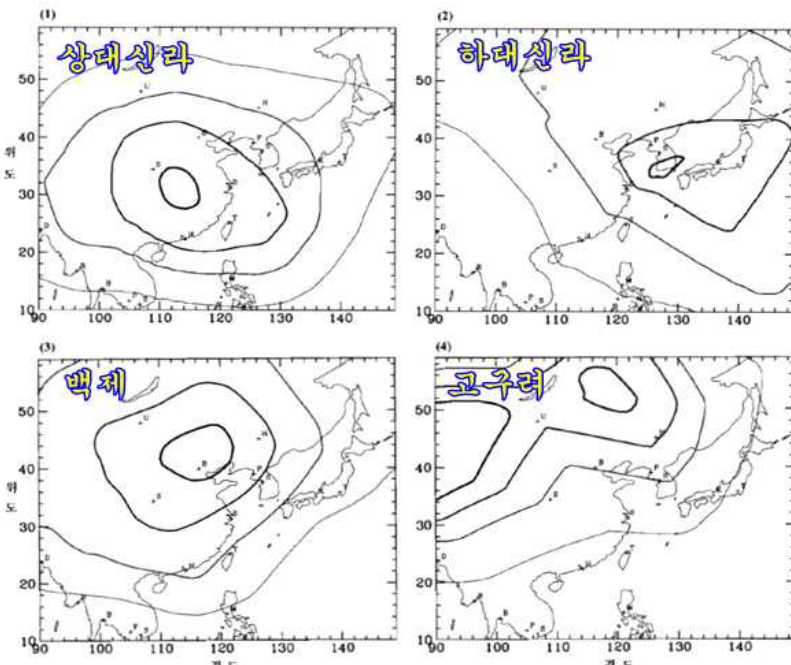
12. 백제도 중국 동해안을 점유한 대 강국이었다.



좌측지도는 AD490년대 백제 동성대왕이 북위의 기병 수십만을 물리치고 임명한 태수의 위치들입니다 (남제서 기록)

북위와의 전쟁에 보낸 백제 장수 이름이 해례곤, 목간나, 찬수류, 사법명인데 이 성씨들은 국내에는 하나도 없고 현재 중국동해안 등에 남아 있습니다.

13. 박창범 교수(현 고등과학원)가 삼국사기 일식기록 분석으로 찾아낸 삼국의 위치



서울대학교 천문학과 박창범 교수가 일식 최적관측지로 찾아낸 삼국의 위치 (동그란 원 부분이 그나라 수도위치로 추정)

- 신라 : 상대에는 양자강 유역  
하대에는 한반도 남부
- 백제 : 발해만, 하북성 유역
- 고구려 : 북경 북쪽 울란바토르 유역